

KIA, 중위권 도약 분수령... 집중력이 승패 가른다

17~19일 KT·20~22일 SSG전
KIA, 양팀과 각각 0.5·2경기차
마운드 불안·타선 빈타 극복을



KIA 타이거즈가 17일부터 열리는 주중 6연전에서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주전 선수들의 줄 부상으로 시련을 겪고 있지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중위권 도약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는 17일 KT 위즈와 20일부터 SSG 랜더스를 상대한다. KIA가 리그 순위에서 KT와는 2게임 차, SSG와는 0.5게임 차로 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승수를 확보한다면 순식간에 5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다. 다만 계속되는 부상 악재에다 선발과 투수진의 부진과 타선 기복이 심한 만큼, 주중 집중력 있는 경기를 보여준다면 하위권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A는 주중 6연전을 앞두고 또다시 부상 악재가 발생했다. 지난주 삼성 라이온즈와 달빛시리즈에서 새로운 중심타선으로 떠오른 윤도현이 손가락 골절로 경기를 이탈하며 KIA가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NC 다이노스와 우중 3연전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선보이면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다. 이로써 KIA는 34승 1무 33패·승률 0.507로 순위는 여전히 7위에 머물러 있지만 이번주만나는 4위 KT(36승 3무 31패·승률 0.537)와 2경기 차, 6위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를 승리하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SSG(34승 2무 32패·승률 0.515)와는 0.5경기 차로 바짝 쫓고 있어 이번 3연전에서 KIA의 위닝시리즈가 절실한 상황이다.

2연승 중인 KT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로 승률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기세가 좋은 팀이다. 특히 6월 들어 평균 타율 0.353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리그 내 투수 평균자책 순위에서도 10위 안에 KT 헤이스스(3위·평균자책 2.43), 고영표(9위·2.93), 오원석(10위·2.93)이 포진하고 있는 등 공·수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다. 심지어 올 시즌 타율 0.349, 출루율 0.431을 기록하며 신인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KT 외야수인

현민은 6월 들어 3개의 홈런을 때려냈고 타율 0.476(3위)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같은 기간 리그 내 타율 4위 이호연(타율 0.474), 5위 김상수(0.455), 7위 이정훈(0.438)의 타율을 자랑하고 있다.

SSG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승률 최하위와 올 시즌 팀 타율 0.241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이달 타율 0.282(3위)와 평균자책 3.98(4위)로 KIA보다 앞선 모습이다. 특히 SSG 선발 드류 앤더슨은 평균자책 2.09로 한화 폰세(평균자책 2.16)보다 높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KIA는 투·타 모두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이달 들어 윤영철(평균자책 1.64)

과 김도현(2.13), 네일(2.50)의 호투를 앞세워 평균자책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러(4.50)와 양현종(5.84)이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다. 개막 이후 올리는 지난 달까지 총 11경기에서 평균자책 2.91로 준수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13일 NC전에서 우중 혈투 끝에 5이닝 4실점을 했고 양현종은 지난 8일 한화전에서 2.1이닝 만에 5실점을 당하며 일찍이 마운드를 내려왔고 바로 다음 경기인 지난 14일 NC전에서 5이닝 3실점을 하는 등 다소 부진하고 있다.

주전 선수들의 복귀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체 자원'으로 최대한 타선을 끌어 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다만 빈

2025 KBO리그 순위		(16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한화	69	41	27	1	0.603	0.0
2	LG	69	40	27	2	0.597	0.5
3	롯데	70	37	30	3	0.552	3.5
4	KT	70	36	31	3	0.537	4.5
5	삼성	69	36	32	1	0.529	5.0
6	SSG	68	34	32	2	0.515	6.0
7	KIA	68	34	33	1	0.507	6.5
8	NC	66	29	33	4	0.468	9.0
9	두산	69	27	39	3	0.409	13.0
10	키움	72	20	50	2	0.286	22.0

타에 그쳤던 타격이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대체재원의 주전급 활약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KIA는 지난 14일과 15일 NC전에서 각각 8개의 안타로 9점, 9개의 안타로 4점을 뽑아냈다. 12일 삼성전에서 1점차 패배를 했지만 11개의 안타를 뽑아낸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찬스에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집중력이 발휘되도록 타선 기복 문제 해결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시즌 KT에게 4승 5패, SSG에게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KIA는 이번 주 6연전이 단순한 실욕전을 넘어 올 시즌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자원들의 분투, 불안한 마운드와 기복 있는 타선의 안정화 여부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와 SSG를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거둔다면 중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연패에 빠질 경우 5할 승률 유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팀 전체의 집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순천시청 양궁팀이 제36회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양궁대회에서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 등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청 양궁팀, 한국실업양궁연맹 대회서 金 석권

여자 단체전·개인전 등 3개 金

순천시청 양궁팀이 제36회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양궁대회에서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양궁연맹이 주최한 대회로, 전국 43개팀 140여명이 참가했다.

순천시청 양궁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LH를 5:4로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전 70m에서는 유시현 선수, 60m는 남수현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며 양궁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선수들의 기량을 바탕으로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매일 훈련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있을 국내외 대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청 양궁팀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 43회 대통령기 전국남여 양궁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태, 장애물 경기 첫 출전해 문체부장관기 우승

남일부 5종 개인전 1601점 1위 방준서와 5종 단체전에선 銀

'한국 남자 근대5종 간판' 전용태(29·광주광역시청·사진)가 장애물 경기가 포함된 5종 경기 첫 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전용태는 지난 15일 전남 해남 우슬체육공원에서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남자 일반부 5종 개인전 결승에서 총 1601점(펜싱



278점 1위·수영 311점 10위·장애물경기 331점 17위·레이저런(사격+육상) 681점 1위)을 획득하며 정상에 올랐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근대5종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겼던 전용태는 지난해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승마가 빠지고 장애물 경기가 새로 도입된 5종 경기에 처음 출전했다.

장애물 경기 성적은 17위에 그쳤지만, 펜싱과 레이저 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김경환(국군체육부대·1545점)과 이주찬(경산시청·1515점)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전용태는 방준서와 함께 남일부 5종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합작했다.

전용태와 방준서는 총 3050점(펜싱 472점 1위·수영 594점 9위·장애물경기 691점 4위·레이저런 1293점 1위)으로 2위를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중 송채연, 아시아주니어선수권 단체종합 은메달

탁소민·이혜진·이세연·박혜란 등 단체종합 137.696점 2위 개인종합은 46.532점 4위

'한국 여자체조 유망주' 송채연(광주체육중 3년·사진)이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단체종합 은메달을 차지했다.

송채연·탁소민(합포중)·이혜진·이세연(이상 서울체중)·박혜란(한일중)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주니어 기계체조 대표팀은 지난 13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5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주니어 단체종합에서 137.696점을 기록하며 일본(152.897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홍콩(137.029점)과 접전을 벌였으나 집중력과 연기 완성도에서 앞서 은메달을 확정 지으며 세계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개인종합에서는 일본의 토비 미나미가 56.166점으로 금메달, 사라다 아유가 50.466점으로 은메달, 필리핀의 안톤 엘리자베스가 48.565점으로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송채연은 46.532점으로 4위를 기록하며 이단평행봉과 평균대 종목별 결승에

진출했으나 두 종목 모두 5위에 그쳐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종목별 결승에는 도마 박혜란·탁소민, 이단평행봉 송채연, 평균대 이세연·송채연, 마루 박혜란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홍윤식 광주체중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송채연을 비롯한 주니어 선수들이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한국 체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축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23개국에서 600여명이 참가해 10일간 남자 6종목(마루·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여자 4종목(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을 시니어와 주니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최동환 기자